독자투고

인맥에 의한 표 강요…선거혼탁

정치적 판단 따라 소신껏 투표해야

대부분의 단대가 단독후보출마인데 반해, 2월이 경선을 한 정경대 선거가 18일(목)에 끝났다. 결과는 기호 2번이 약 30여 표차로 이겼다. 예상은 됐지만, 막상 결과가 눈 앞에 나오니 몹시 씁쓸했다. 기호 1번이 떨어지고 기호 2번이 당선되어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이 낮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번 선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들의 복합작용이지만, 적어도 양 선본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저급하거나 없어서 일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투표율은 75%를 넘었다. 그러나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선본에서는 표체크를 하고 투표안한 학생들이 수업들어 갈 때나 나갈 때 잡거나 붙들와서, 심지어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과장을 좀하면 끌고오듯 데리고 와 천절하게 "기호 몇번이다"하며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다란 기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강의실에 들어와 유세할 때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에서 나온 후보에게 그냥 표주지 말고 합리적 선택을 하라"며 '당위'의 말을 한 후보가, 어떻게 투표당일에는 친근한 학생에게 "○○과는 몇 백명이 투표했는데 ○○과도 해야…"란 연행불일치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선거가 지역감정의 싸움에서 결판나듯이, 과 감정을 이용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이번 선거도 결판났다. 당선자에게 어떠한 죽하의 말도 건낼 수가 없다. 이런식의 선거운동방식으로 이긴 것이 이디 측하해 줄 만한 것인가? 또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형식적으로 인정받았을 뿐이라 내년에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패자에게도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다. 자신들의 민주주의관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표를 얻으려 했다면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졌다면 배운 것도 많고 떳떳했을 것이다.

이제 총학선거가 남았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문리대가 주사파에게 몰표주고 의대가 비주사파에게 몰표를 주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몰표를 주어도 그것이 과나 단대의 분위기 또는 인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생각과 주장을 알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길 바란다.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일이다. 진리를 탐구해나가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회의 추악한 선거풍토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교육은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선거풍토를 경험한 학생들은 더욱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인맥을 통해 학생들을, 표를 찍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인정받아 당선되는 선거가 되길 쳐어도 바란다.

이 원 용
〈경제·3〉

수도권 대학 교통문제 심각

버스회사의 학생배려 아쉬워

아마도 교통문제처럼 우리들이 가장 절실하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또 가장 섬겨 잊거나 체념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수원에서 통학하는 경우에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수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방법은 스쿨버스를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두가지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해 이맘때 92-1번 버스가 학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이전에 61, 62, 104번 버스가 있었지만 이름만 있는 정도였고 그것을 이용하기는 무척 힘들었다. 따라서 92-1번의 운행은 많은 학생들이 반가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통학하는 기회의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올 2학기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배차간격이 다시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수원에서 학교들어올때 보통 한없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학교버스를 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은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인복위에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조금은 더 편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손 영 희
〈중문·4〉

독자의 시

'국문학과 졸업생환송회기념백일장-장원作

은행잎, 한 계절 햇빛의 추억이여

배 호 남
〈국문·2〉

은행잎 썩는 냄새가 향기롭다
뜻밖이다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 있다니
오래 익힌 과일주의 향기같은
은행잎은 썩어가는게 아니라
발효하고 있는 게다
엽록소 한톨 한톨에
채곡히 햇빛을 받아 모아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을은 오고 햇빛은 사위었다.
여름 내 품 닫고든
햇빛의 잔영으로 남겨져
버려져도 한 데 서로 몸부벼
바래진 색깔로 썩아간다
아니 한 다발 햇빛의 즙으로
빚어지며 풀려간다.

한 계절 제 힘을 다해 지켜오던
추억의 죽어감, 그
향그러움이여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의료원 직원일동 2억8천여만원

사무·관리직·간호사 2백77명 참여

△정인식(자연대 유전공학과 교수):1백50만원 △울재승(자연대 유전공학과 교수):1백50만원 △김지영(자연대 유전공학과 교수):1백50만원 △김윤화(의대 의학과 교수):1백만원 △박용구(의대 의학과 교수):1백만원 △김윤화(의대 의학과 교수):1백만원 △최현림(의대 의학과 교수):1백20만원 △민영기(자연대 우주과학과 교수):3백만원 △허충(의대 영문과 교수):2백만원 △이건형(서울 사무차장):2백만원 △김광원(의대 의학과 교수):1백만원 △양중식(자연대 화학과 교수):3백만원 △양성철(평화복지대학원 교수):2백만원 △팽정식(서울관리과 원예사):60만원 △이기동(동문):20만원 △장외남(장재준의 父):5만원 △익명:1백50만원 △양송미(고황재단 직원):80만원 △박충서(하키부 감독):50만원 △양행석(복싱 감독):50만원 △김희규(배구 감독):50만원 △전정우(태권도 코치):50만원 △김태운(여자축구 코치):50만원 △김태훈(핸드볼 코치):50만원 △현석환(유도 코치):50만원 △지남용(탁구 코치):50만원 △최명진(체조 코치):50만원 △안덕균(럭비 코치):50만원 △최병학(배드민턴 코치):50만원 △박동은(서울 도서관 직원):60만원 △이원(문리대 화학과 교수):2백만원 △한태룡(자연대 유전공학과 교수):2백만원 △김명일(의대 분과 2년):5만원 △최석호(자연대 물리학과 교수):1백20만원 △이수철(사범대학교무처장):1백50만원 △경희의료원 직원일동(1차분):2억8천7백20만원 △박신자(호텔전문대 교수):2백만원 △이영남(호텔전문대 교수):1백20만원 △정청송(호텔전문대 교수):1백40만원 △심기성(호텔전문대 교수):1백8만원 △이기종(호텔전문대 교수):1백50만원 △안옥모(호텔전문대 교수):1백만원 △김상훈(호텔전문대 교수):2백40만원 △김천성(호텔전문대 교수):2백만원 △박홍현(호텔전문대 교수):1백만원 △이경화(호텔전문대 전임강사):1백만원 △권택영(문리대 영문과 교수):2백만원 △신규승(자연대 물리학과 교수):1백20만원 △김병빈(경희고등학교 교감):50만원 △박용수(경희여자고등학교 교감):50만원 △조이준(경희국민학교 교감):50만원 △박영삼(경희여자중학교 교감):50만원 △이의영(경희국민학교 교감):50만원 △성백환(호텔전문대 교수):1백만원 △권용주(호텔전문대 교수):50만원

이상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접수내역임.

알림터

교수동정

강성일 교수 방일

【서울캠퍼스】▲김엽(문리대·물리학)교수=20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Emory대학 물리학과 출장차 미국 방문 ▲배대경·양문호(의대·의학)교수=22일부터 12월 4일까지,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각 학회참석차 일본방문 ▲이재헌·오보훈(의대·의학)교수=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방문 ▲김나인·홍성화(의대·의학)교수=30일부터 12월 11일,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학회참석차 각각 미국, 대만방문 ▲강성길(한의대·한의학)교수=22일부터 27일까지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 초청연사자격으로 일본방문

【수원캠퍼스】▲김정현(자과대·환경)교수=23일부터 27일까지 논문발표차 일본방문 ▲정홍신(공대·기계)교수=12월20일부터 28일까지 논문발표차 일본방문.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영빈(법대) ▲권영철(경제·2) ▲박희경(영교) ▲김연경(식영·2) ▲치대학생회 ▲김해범(삼의원 422) ▲박정호(삼의원 407)

【수원캠퍼스】▲장운경(영문·2) ▲정임선(중문·4) ▲정병수(행정·1) ▲권세능(회계·2) ▲김언주(화학·4) ▲황기원(유전·1) ▲오진화(우주·4) ▲이승종(기계) ▲전홍신(기계) ▲이종원(기계) ▲윤현식(전자) ▲김홍석(건축) ▲최용득(산공·3) ▲황덕현(산공) ▲이상훈(원자) ▲박세인(농학·3) ▲권신헌(농학) ▲김성수(원예·1) ▲장현수(식공·1) ▲김문호(체육) ▲원동준(체육) ▲위재욱(체육) ▲정태원(태권도·3)

분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전용수(우주·4)=도서대출중. 지난 18일교내 ▲김유창(건축·1) 갈색가죽지갑(학생증·주민등록증) ▲김성경(수학·1) 의료보험카드 외대 도서관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고광표(국문·88) ▲김유신(영문·92) ▲유길종(체육·92)

【수원캠퍼스】◇학생증=▲이동현(정경·1) ◇도서대출증=▲김사길(산공·1) ▲박성준(우주·1)

동문모임

울산 졸업생 환송회

【서울캠퍼스】▲영생고=27일 오후 7시 칼맨 ▲창신고=27일 오후 5시 유림회관 ▲전남고=26일 오후 6시 체대앞 녹원 ▲명석고=26일 오후 6시 심포니 ▲문호고=26일 오후 6시30분 형 ▲충주고=27일 오후 6시 정문 ▲남대전고=24일 오후 5시 체대앞 녹원

【수원캠퍼스】▲고려·문일고=22일 오후 5시 학생회관 로비 ▲목포 졸업생 환송회=23일 오후 5시30분 2호관 돌나방 ▲중앙고=24일 오후 5시 장통식당 ▲의정부 향우회=24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한성공=26일 오후5시30분 공대식당 ▲안창·중앙고=2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울산 졸업생 환송회=28일 오후 1시 다륭(신갈 국민은행옆) ▲영일고=2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朔風

지금도 늦지 않은 환경보호

오염된 산천 속에서 국민들은 당황하고 있다. 질척이는 흙탕물만 더러운 것으로 알았던 우리는 카드뮴이니, 총인(P)량이니 하는 알지 못할 단어들로부터 짓눌리기 시작해 드디어는 핵의 동해에서 비로소 참담한 문명의 오후를 예감한다.

그동안 우리는 분류 하수관로로 중랑천의 물을 '보이지 않게' 하류로 흘려보내는 영악함을 터득했고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4백톤 이상 수거되는 분뇨중에서 2백50톤 정도만을 겨우 처리하고 나머지는 행주산성 부근에서 한강 하류로 쏟아버려야 하는 '비극적 배설'을 충분히 연습해왔다.

드디어는 검은 기름이 청정해역을 감싸고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개들은 대량으로 죽어갔다.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기 시작했지만 매립장 공사는 여전히 옛날처럼 부실했고 공장들은 코가 뚫어진 환자를 잘도 쏟아냈다.

4천만의 인구가 쏟아내는 쓰레기만도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드는데 서쪽 대륙의 강줄기에선 수억 인구가 쏟아낸 오염 물질이 밀려내려와 서해를 채운다. 황의해봐야 중국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한다고 해도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비관론자도 있고 어깨에 떠나 두르고 환경보호를 외치면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다. 바다에서 질러대는 그린피스의 악다구니에는 철망의 냄새가 젖어있지만 9시 뉴스 화면에서나 잠시 나타났다간 사라질 뿐 우리는 또 일회용 기저귀 광고에 나오는 귀여운 아기의 웃음에 시선을 쏟는다.

비극은 그렇게 관념적이지만은 않다. '우리'의 문제이기 전에 당장 '내'문제가 됐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 집 옆에만은 안된다는 주장이 안면도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사이에도 한강은 물론 상수원인 팔당호나 대청호 심지어는 충주호에서도 기형 물고기가 나타났고 강의 최상류까지 예전 같지 않아 1급수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보고가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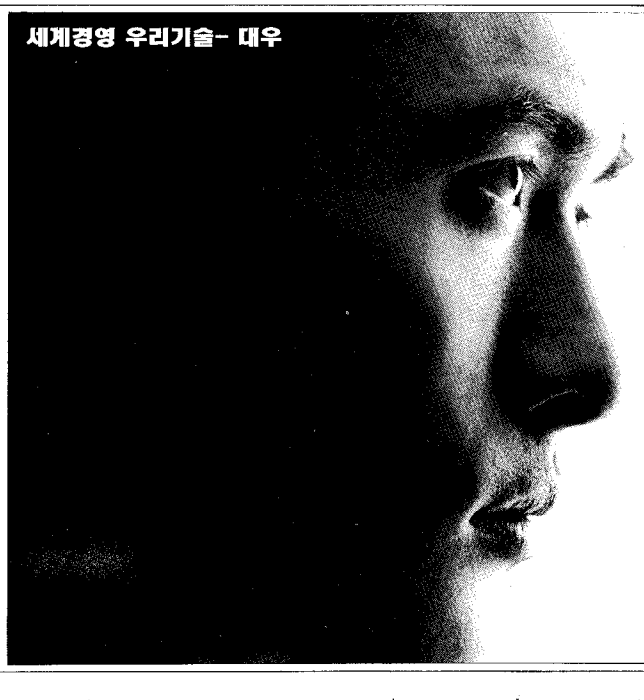
문제의 심각성은 어려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법과 제도, 관리와 감독은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환경문제에 관한 뼈아픈 기억을 한두 가지쯤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뒤를 따라온 덕분에 환경관련 법규도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 시설을 잘 갖춘 공장에서 여전히 폐수는 흘러나온다.

공장마다 감시원을 세워둔다 해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정부를 탓하고 시설 부족을 탓할 만한 자격이 없다.

땅 넓이로만 따져서 미 대륙의 25%에 해당되는 알래스카에는 약 5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버릴 것도 많지 않지만 반대로 버린 것을 줍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도 그들은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과 주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알래스카의 법은 엄하기도 해서 생선의 내장인 경우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양과 횟수에 따라 엄청난 벌과금을 내야 한다. 어기는 이를 보기는 어렵지만 고발하는 이를 보기는 어렵지 않다. 법을 몰랐다든가 외국인이라는가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후회해도 좋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내가 무심히 쓰레기를 버리던 순간에 왜 아무도 나를 고발해 주지 않았는지, 왜 나는 또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는지 후회는 언제나 늦고 또 언제나 빠르다.

〈몸의 마음〉



왜 모두들 돌아오

"더 나아가기는 커녕,
남아있던 해외터전마저 내주고 오는 오늘—
대우는 우리경제의 사활을 「세계경영」에 걸고
경제도약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